

일본의 쇠고기 수입의

장기전망



저자 : 土 屋 圭 造

번역 : 이 문 연

《머 리 말》

1995년 12월 26일 농정심의회에서 검토된 2005년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이 일본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이하 ‘장기전망’이라 함)은 농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작성 공표한 것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당부문의 농업정책에 따라 장래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장기전망은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장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농정담당자 뿐만 아니라, 육우생산자에게도 훌륭한 경영지침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수성 작성의 자료에 의거하여, 「쇠고기 및 사료의 수요와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쇠고기는 물론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장기전망도 간단히 서술하여 보기로 한다.

1. 장기전망정책의 배경과 특성

(1) 배 경

이번 장기전망의 수립은 농업기본법 시행이래 6회째이다. 전회의 5회째는 1990년에 공포되어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각회마다 장기전망은 각기의 배경은 있으나 이번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①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로 새로운 국경조치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내대책도 이끌어내어 농가가 의욕을 갖도록 농업을 경영할 수 있

는 장래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② 세계의 식품사정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의 먹거리 자급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방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③ 소비자 필요에 즉각적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일본농업의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2) 특 색

이번 장기전망은 다음의 특색이 있다.

① 전망의 전제조건은 단순히 예측적인 것으로 의욕적이다. 근년의 추세에 기초한 장기전망으로 이것은 추세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 자급율(공급열량기준)은 현재의 44~46%를 표시하였으나 추세전망에서는 41~42%로 약간 낮다. 이 정도는 선진제국중에 최저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유지 확대를 가능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만족도는 높고, 음식소비는 이미 양적인 것은 포화상태이다. 이 때문에 품목별 소비량의 증감은 적다. 이 중에서 쌀의 소비가 완만히 감소하고, 쇠고기 소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계속되리라 전망한다. 즉, 수요의 신장으로 쇠고기나 사료작물의 생산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쇠고기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

(1) 쇠고기 수요

① 쇠고기 1인당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쇠고기의 신장은 현저하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옆걸음치거나 거의 증가하고 있지 않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나, 동일본지역은 쇠고기보다도 돼지고기를, 거꾸로 서일본지역에서는 돼지고기보다는 쇠고기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근년에는 사정이 다소 변화하여 쇠고기의 가정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일본지역에서는 돼지고기의 감소에 따라 쇠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쇠고기 1인당 소비의 지역간 격차는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② 쇠고기의 수요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1993년의 쇠고기 수입자유화의 가격저하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외식산업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돼지고기의 수요는 가공식품의 확대 등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상대가격의 축소로 수요의 신장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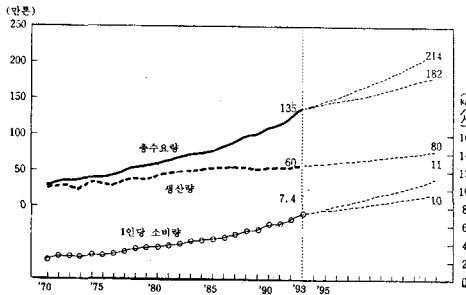
닭고기의 수요는 아직까지의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쇠고기 급증의 영향으로 신장이 둔화되고 있다.

금후에도 소득수준등의 향상에 따라 육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신장은 완만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에서도 육류간의 경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종류의 고기에서도 국산육과 수입육간의 경합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종래의 쌀과 축산물 및 유지와의 대체관계에 있어서는 유지의 소비가 옆걸음치고 있고, 쌀소비의 완만한 감소는 축산물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③ 2005년에는 육류의 1인당 소비가 1993년(29.9kg)에 비하여 10~20% 정도의 증가로 33~35kg 정도로 전망된다.

종류별로는 쇠고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간 격차가 축소되고, 금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의 7.4kg에 비하여 2005년에는 11~12kg 정도로 전망된다.



〈그림1〉 쇠고기 수급의 추세와 전망

돼지고기는 가정소비가 격감하는 반면에 가공식품의 증가는 미미하여 1993년의 11.4kg에 비하여 2005년에도 11~12kg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의 가정소비는 현상유지되나 가공식품의 증가로 1993년의 10.4kg에 비하여 2005년에는 10~20% 정도 증가한 11~12kg 정도

로 전망된다.

이 결과 2005년도의 육류 총수요량은 1993년도의 530만톤에 비하여 605~649만톤 정도로 전망된다.

종류별로는 쇠고기는 1993년에 비하여 30~50% 정도 증가한 182~214만톤 정도, 돼지고기는 10% 정도 증가한 216~220만톤, 닭고기는 10~20% 정도로 193~200만톤으로 전망된다.

(2) 쇠고기생산

① 쇠고기생산은 꾸준한 수요의 증가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육전용종의 사양두수는 증가 추세이나, 유용종우의 사양두수는 최근의 생유생산동향을 반영하여 담보 상태로 젖소에 의한 쇠고기생산의 장기 전망은 담보 경향이다.

② 육용우 경영에 있어서는 소규모농가를 중심으로 감소 경향이 있다. 특히 육용우 경영의 약80%를 점유하는 번식경영의 감소가 크다. 번식경영에 있어서는 사양규모가 극히 영세한 고령농가가 많고 대부분이 벼농가와의 복합영농이다.

이중에서 번식경영은 송아지 생산농가로 번식우 5두규모, 육전용종 비육경영은 50두이상 규모, 젖소비육경영은 100두이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육용우의 사육두수와 두당 지육증량의 추세와 전망

(單位 : 千頭, kg)

	1989	1990	1991	1992	1993	2005
사육두수	2,702	2,805	2,898	2,956	2,971	433만두
육 우	1,664	1,732	1,815	1,868	1,879	322만두
유 우	1,038	1,073	1,083	1,088	1,093	111만두
지육증량/두						
육우거세우	418	420	424	427	425	415만두
유우거세우	424	430	433	437	432	426만두
생우출하두수	1,356	1,385	1,446	1,481	1,498	199만두

③ 금후에도 계획적인 규모 확대와 생산 및 경영관리 기술의 향상으로 경영 감각이 우수하며,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이것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생산구조로 정착하도록 조기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정란이식등을 활용한 생산의 확대, 생체초음파 측정기를 활용한 출하적기의 파악은 비육기간의 단축등 효율적인 생산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④ 비육경영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접하는 송아지의 비율이 높아, 수익성이 송아지가격의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이 때문에 일정지역을 권역화하여 번식부분과 비육부분을 결합하는 일관생산등을 추진하여 경영의 안정화와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⑤ 이것을 이해하고 국산쇠고기에 있어서는 품질면에서의 우위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소비

자 육구에 대응한 안정공급이 도모되는 것을 전제로 생산량은 그림1에 보여지는 것처럼 1993년도에 60만톤에 비하여 30%정도 증가한 80만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 동안 육질이 좋은 육전용종은 소비의 고도화로 1993년도의 24만톤에 비하여 40만톤정도로 국내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육용우의 사양두수는 표1에 보여지는 것처럼 1993년도 297만두에서 2005년도에서는 433만두 정도 증가 예상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육전용종이 187만 9천두로부터 322만두로, 육용종등은 109만 3천두로부터 111만두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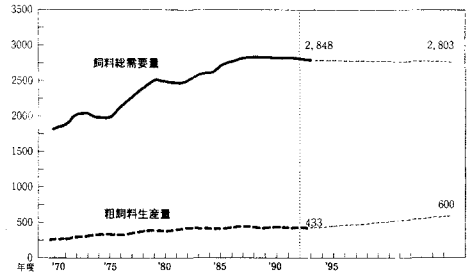
3. 시료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

(1) 사료수요

근년의 사료수요는 그림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럼 가축사양두수의 변동추세와 같다. 금후의 사료수요량(가소화양분총량)에 있어서는 가축 개량이나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사료 효율의 향상이 예상되므로 1992년의 2,848만 톤에서 약간 감소되는 2,803만톤정도로 전망 된다. 이 중에서 목초등의 양질조사료는 676만 톤정도, 조사료 전체로는 797만톤정도로 예상 된다.

(万t)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年度 昭
45 50 55 60 平2 4 5 7 12 17 2,848 2,803 433 600
飼料總需要量 粗飼料生産量



〈그림2〉 사료수급의 추이와 전망(TDN기준)

〈표 2〉 사료작물의 작부면적 및 10a당 수량의 추세와 전망(단위 : 천 ha,kg)

	1989	1990	1991	1992	1993	2005
재배면적	1,046	1,046	1,047	1,032	1,015	120万ha
10a기준수량	4,120	4,310	4,090	4,210	3,800	4,770

(2) 사료작물생산

① 사료작물생산은 근년 표2에 보여준 것처럼 작부면적이나 단위당수확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 수입조사료가 엔고의 진전으로 싸다는 느낌이나 취급의 편리성으로 증가되고 있다.

육용우경영에 있어서는 코스트다운, 경영의 안정화, 분뇨의 농지환원에 의한 환경보전등의 관점으로부터 금후도 자급사료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금후 초지의 조성, 정비, 농지이용의 집적, 기경지의 작부체계 확대, 경작방치지, 마을의 산, 임야등의 활용에 의한 사료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에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의 조직화, 외부화나 우량초종, 품종의 도입, 생산이용 기술의 개선 및 고위평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이런 것을 이해하여 사료작물 작부면적은 자급사료기반의 확충, 조사료생산의 합리화, 가축분뇨의 적극적 활용의 진전을 전제로 하며, 1992년도에 103만ha에 비하여 2005년에는 120만ha로 예상된다. 이 결과 양질조사료 생산은 가소화양분총량으로 600만톤으로 전망된다(그림2참조).

4. 육진용종우의 사료작물의 진흥대책

(1) 이상 장기전망을 쇠고기와 사료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쇠고기와 사료작물

의 수요와 생산도 높이 신장될 것으로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육의 자급율은 1993년도 44%에 대비하여 2005년에는 40%(추세전망은 35%)로 전망되며, 사료자급율도 현재 24%, 2005년에 34%(추세전망 28%)로 의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신장율은 정책적 지원을 따라 의욕적으로 전망된

다. 반면에,

- ① 육전용종 거세비육우의 도축일령은 24개월로 젖소수소거세비육우의 도축일령 17개월에 비하여 비육기간이 길다.
- ② 육전용종의 생산에는 번식암소의 사육이 필요하다.

〈표 3〉 축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비교

(단위 : 만톤, %)

구 분	1993년			2005년		
	국내소비량 (A)	국 내 생 산 량 (B)	자 급 율 (B)/(A)	국내소비량 (A)	국 내 생 산 량 (B)	자 급 율 (B)/(A)
육 류	529	337	54	605~649	367	59
쇠 고기	135	60	44	182~214	80	40
돼지고기	208	144	59	216~220	145	57
닭 고기	171	133	77	193~200	141	72
우유·유제품	1,074	855	80	1,259~1,363	1,010	77

(2) 최근 사료작부면적의 신장은 도부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북해도에는 증가 경향이 있다. 나라전체로 보아서는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작부면적의 증가는 어렵지만, 장기전망에서는 약20%의 증가를 전망한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이다.

장기전망에서는 육용우의 사양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분처리과 과제로 등장한다. 분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육용우 1두당 20a의 사료작

물면적이 필요하여 사료재배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2005년에는 제4차 토지개발장기계획에 기초한 초지조성개량의 착실한 실시 등에 따라 초지조성 9만ha, 농지유동화에 의한 기경지의 축산적이용 7만ha, 기타 답리작동에 의한 2만ha로 총 18만ha 정도의 사료작부면적의 확대증가가 예상된다.

(3) 사료작물의 생산향상으로는 단보당 생산성증대, 기계화, 비배관리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① 최근 사료작물의 단위당 수량의 증가는 어렵다. 단보당 증가요인으로는 ㉠ 비배관리, 수확기조절, 초지갱신 ㉡ 우량초종과 품종의 개발보급 ㉢ 배수대책 심경등 작부조건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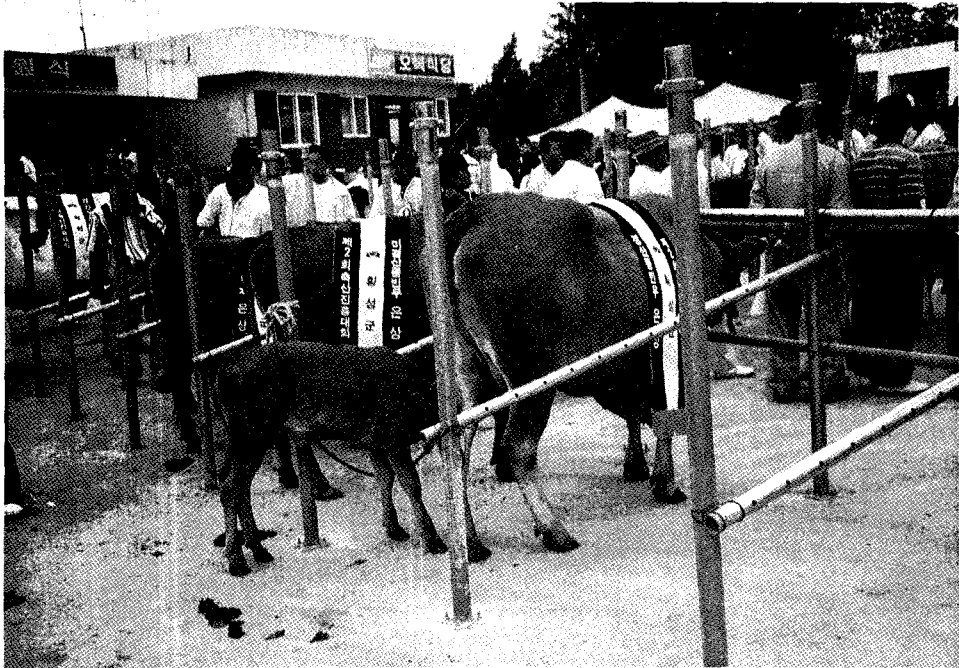
② 기계화에 있어서는 ㉠ 효율적 기계의 도입과 기계의 공동이용 공동작업조직화 ㉡ 공공목장의 활용등 방목이용 ㉢ 콘트랙타의 육성에 의한 사료생산의 외부화 포장의 단지화 ㉣ 구획의 대규모화에 의한 작업의 효율화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비배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퇴비의 적극적 활용에 의한 지력의 유지와 비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작년 11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일본을 목표로 하는 쇠고기 생산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안전성도 높이고 있었다.

수입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선돈나 안전성, 미각 등에 우위성을 높이고 국산쇠고기의 특징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싸고 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쇠고기생산을 게을리 하면 대량의 쇠고기가 수입되어 쇠고기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가 없기를 희망한다 □



제2회 황성군 축산진흥대회에서 시상축계류대에 있는 한우, 엄마 젖을 찾고 있는 송아지